조선대 총장 2위 전호종씨 결정 파장과 전망

불법선거 논란 내홍 지역사회 큰 우려

조선대 이사회가 제14대 총장에 1위 득표자가 아닌 2위 득표자인 전호종 후보를 선임했다.

이사회가 관행을 벗어나 2위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대학 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사회는 이날 오후 3시간 이상 1위, 2위 득표자인 서재홍 후보와 전호종 후보에 대한 최종 선임안를 놓고 갑론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후보에 대해 1시간씩 경영평가와 대학발전 방안, 선거과정에서의 적법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면접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다득표자인 서재홍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과 2위지만 선거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선거를 치른데다 면접 평가가 높은 전 후보를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9명의 이사는 교과부 추천과 옛 경영진 추천, 학교 추천 등에 의해 선임돼 각각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바람에 양 후보를 놓고 논쟁이 격렬했다.

이번 총장선거 이후 서 후보 지지측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의미는 구성원의 의사에 의한 조직 의사의 결정"이라면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1위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후보 지지측에서는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조선대 총장선출규정) 상황에서 전직 총장들이 나서고, 출마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결과를 떠나 선거법을 어긴 것이 명백한 만큼 1위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민주적인 조치다"고 맞섰다.

이번 선거는 8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선거 초반부터 과열·혼탁 분위기를 보여 대학 구성원조차 '유례가 없을 정도의 구태선거'라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얼룩졌다.

전직 두 총장이 사실상 특정후보 낙선과 담합 모임을 주선하는 등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나서 비난을 샀다. 여기에 컷오프한 예비후보들이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불법선거 논란까지 불러왔다.

하지만 이사회가 관행을 뒤엎고 2위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임함에 따라 1위 득표자와 지지 구성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국공립대 총장, 구조개혁 강한 불만

이주호 장관 "대학구조개혁 일시적 현상 아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6일 최근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 "현장에서 '정권 말기의 일시적인 소나기 아니냐'는 정서가 있는 것 같다.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전국 38개 국공립 대학 총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장기적·근본적 배경이 있다. 12년 후가 되면 대학 신입생 40%가 줄어드는 큰 변화가 있고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대학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총장과 협의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조개혁을 진행하겠다"며 "중점추진 대학은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학이나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대 권영중 총장은 "중점추진 대학 발표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생각이 들고 재학생 충원율 등 일부 지표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군산대 채정룡 총장은 "지역·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취업률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면 지역을 배려한 '취업할당제'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전국총학생회장단모임 소속 총학생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대책, 정부재정 지원대학 제한대학 선정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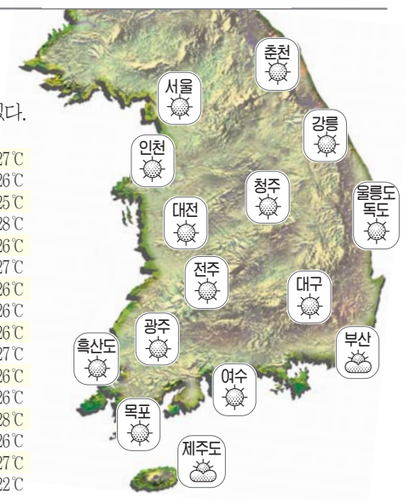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24분 해짐 18시 23분 달뜸 05시 53분 달짐 17시 55분

교통안전 '유의'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많겠다.

광 주	구름조금	14/27℃
목 포	구름조금	15/26℃
여 수	구름조금	18/25℃
나 주	구름조금	13/28℃
완 도	구름조금	15/26℃
구 례	구름조금	11/27℃
강 진	구름조금	14/26℃
해 남	구름조금	12/26℃
장 흥	구름조금	12/26℃
순 천	구름조금	14/27℃
영 광	구름조금	12/26℃
진 도	구름조금	14/26℃
전 주	구름조금	12/28℃
군 산	구름조금	13/26℃
남 원	구름조금	9/27℃
흑산도	구름조금	18/2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5~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주의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1:31 13:55	06:57 19:18
여수	08:43 21:00	02:23 14:4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8(수)	29(목)	30(금)	10/1(토)	2(일)	3(월)
날 씨						
최저/최고	16/26	17/23	17/22	13/21	12/21	12/21

내년 초·중등교사 정원 500명 는다

수석교사제 본격 시행

수석교사제가 6월 국회에서 법제화에 성공해 내년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초·중등교사 정원 500명이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에 본격 시행하는 수석교사제의 정착을 돕기 위해 초중등교사 정원 500명을 확보, 2012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추가로 신규 교사 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추가 인원은 초등 200명, 중등 300명이다.

수석교사는 본인의 수업 이외에 동료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장학컨설팅 등 추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업 부담을 50% 가량 경감해 준다. 이들의 수업 경감분을 대신할 교사가 필요해 교과부는 이중 일부 정원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정원은 2012학년도 임용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지난 16일 공고한 인원을 수정 공고했으며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다음달 4일 공고한다. 1차 시험일은 중등 10월22일, 초등 11월12일이다.

교과부는 내년에 수석교사 200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해마다 뽑아 최종적으로 학교마다 1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유사석유 판매 단속 강화

한국석유관리원은 유사석유 탱크를 두고 있던 주유소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과 관련, 유사석유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석유관리원은 사고가 일어난 수원의 한 주유소 세차장 지하에 있는 비밀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톨루엔이 혼합된 유사휘발유임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따라서 이번 폭발이 불법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빛고을로 동림~북광주 나들목 연장 구간

7.62㎞ 연말 개통…전남 북부 숨통

광주시는 26일 "빛고을로 연장 구간인 동림 나들목에서 북광주 나들목까지 7.62㎞ 구간을 연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구간에는 지난 2005년부터 사업비 2507억원이 투입됐으며, 동림 나들목~신용교차로~용두교차로~월출교차로~북광주 나들목까지 모두 7.62㎞에 이르는 구간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북광주 나들목~월출교차로, 1.75㎞)과 광주시청(월출교차로~신용교차로, 4.07㎞), LH공사(신용교차로~동림 나들목, 1.80㎞) 등이 구간별로 나눠 시공했다.

광주시는 동림 나들목에서 북광주 나들목까지 개통되면 고창~담양 간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되면서 전남 북부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산업 물동량 수송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